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학 지식구조 파악: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

Detection of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Studies Using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Self-perception and Others' Perception

김 혜 진(Hea-Jin Kim)**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한국학 지식구조 파악
- V. 결론

요 약: 한국학의 연구 범위는 한국의 역사, 문학,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동시인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학 지식구조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한국학을 다룬 주체에 따라 한국에서 논의된 한국 연구를 주체 인식 한국학,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논의된 한국 연구를 타자 인식 한국학으로 나누어 하위영역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Korea' 또는 'Korean'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인문·사회 분야 문헌 10,929건을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주체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20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고, 타자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14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다. 주체 인식의 한국학과 타자 인식의 한국학의 하위영역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은 첫째, 주체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이 타자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보다 더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것, 둘째, 주체 인식 한국학은 마케팅/소비자와 서비스, 산업화, 다문화,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환경과 도시 등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타자 인식 한국학은 크게 한국 대내외의 상황, 한국 대중문화, 미국 이민자로서의 한국인, 한국어/한국어 습득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영역은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탈주민, 청소년 비행 등이었다.

주제어: 계량정보학, 문헌동시인용분석, 주체인식, 지식구조, 타자인식, 텍스트마이닝, 한국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ct the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studies using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and text mining techniques. This study divided Korean corpus into two perspectives: Self-perceived and others' perceived Korean studies. To this end, we collected 10,929 humanities and social literature containing the word Korea or Korean as a keyword in the SCOPUS database. As a result of analysis, a total of 20 subdomains were found in the knowledge structure of self-perception, and a total of 14 subdomains were found in the knowledge structure of others' perception. Differences in Korean Studies between two are: First, the sub-area of self-perceived Korean studies is subdivided into more diverse areas than the sub-area of other-perceived Korean studies. Second the major areas in self-perceived Korean studies are customers and services, industrialization, multiculturalism, mental health, tourism, Korean language, environment, and cities. Others' perceptions of Korean Studies are grouped into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of Korea, Korean pop culture, Koreans as US immigrants, and Korean language. Finally, the common areas of self-perception and others' perception were mental health, tourism, Korean language, North-Korean defectors, and juvenile delinquency.

KEYWORDS: Bibliometrics,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DCA), Self-perception, Knowledge structure, Others' perception, Text-mining, Korean studie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713)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erin,hj.kim@kongju.ac.kr / ISNI 0000 0004 6853 5079)

• 논문접수: 2020년 2월 27일 • 최초심사: 2020년 2월 27일 • 게재확정: 2020년 3월 1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179-200, 2020. [http://dx.doi.org/10.16981/kliiss.51.202003.17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학(韓國學, Korean Studies)이란 용어의 기원은 조선 후기의 조선학(朝鮮學), 구한말의 본국학(本國學), 일제강점기의 국학(國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대상을 주체로서 인식한 학명(學名)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전성운 2010). 한국학의 연구 범위는 한국의 역사, 문학,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근래의 한국학은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태동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인문학의 연구대상과 방법에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인문학 연구를 확장한 학문영역을 의미한다(김현 2013).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학의 외연이 담고 있는 포괄성은 불명확함(구체적이지 않음)이라는 문제의식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의 외연을 정의하는데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하고 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라는 학문영역의 포괄성이 가지는 불명확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학의 외연(하위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기법은 계량정보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동시인용 분석 기법(co-citation analysis)이다. 동시인용 분석 기법은 특정 분야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 중 하나로 학술논문의 참고문헌 목록 안에서 동시인용된 문헌(co-cited document)을 범주화하는 것이다(Small 1973).

한국학을 분석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한국학은 한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삼을 수 있고, 한국 연구의 주체가 한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아닌 국가나 기관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한국을 언급하는 것은 주체(한국)가 언급하는 것이요, 한국 이외의 주체가 언급하는 것은 타자가 한국을 언급하는 것이다. 한국학을 주체 인식하는 것은 국학(national studies)으로 보는 것이고 타자 인식의 관점에서 다룬 것은 지역학(area stud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승환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한국인의 한국 관련 연구를 주체 인식으로, 타국인의 한국 관련 연구를 타자 인식으로 정의하여 한국학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의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저자의 소속기관을 추출하여 한국과 한국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한국기관의 텍스트를 주체 인식의 한국학, 한국 외 기관의 텍스트를 타자 인식의 한국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의 일부분으로서 한국학의 연구대상 또는 주제를 파악하고자 한 기존 연구들을 진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계량정보학 기법을 사용하여 지식구조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문헌동시인용 기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제4장 한국학 지식구조 분석에서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측면에서 한국학 하위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2. 한국학 문헌연구

한국학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영역(하위영역)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다수가 진행되어왔다.

국내에서 한국학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로 최기숙(2011)은 1950-1960년대에 출판된 인문학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포와 범주를 분석하였고, 임현진과 정일준(2012)은 사회학 분야 연구자 5명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사회학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한국학 현황 분석을 가장 활발히 진행한 나라는 중국으로 대부분 중국 내에서 발행된 한국학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시기별 연구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김윤태 2006; 송현호 2012; 2013; 양동훈 2019). 그 외 아시아 지역은 태국(이병도 2003), 일본(함동주 2001)에서, 유럽지역은 프랑스(김석득 1983), 영국(박영신 1983), 폴란드(오가레크 최 1990)에서, 그리고 미국(박정신 1999) 등에서도 자국 내의 한국학 현황을 분석·보고하였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 특정 지역(국가)에서의 한국 연구의 발전과 교육을 질적 연구를 통해 기술한 것이다.

국내외 한국학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송민선(2015), 송민선과 고영만(2015)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저자 키워드의 동시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한국학 지식구조를 파악하였다. 국내에서는 특히 한국학 관련 인용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퍼스 구축이 어려워 인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학의 지식구조를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인쇄된 텍스트가 아닌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국학 코퍼스를 구축하고 학 분야의 지식구조 파악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용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학 하위영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텍스트마이닝이라는 자동화된 컴퓨터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학 지식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인용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정성적 연구방법론과는 크게 차별화된다.

II. 선행연구

계량서지학(bibliometrics) 분석 기법 중 하나인 동시인용법(co-citation analysis)은 특정 학문

또는 주제영역의 지식구조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동시인용법은 문헌의 참고 문헌 리스트 안에서 동시인용된 문헌을 범주화하는 것으로 문헌이 발표된 후 함께 인용되는 문헌들(cited papers)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들은 해당 분야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Garfield 1979). 문헌동시인용 분석(document co-citation analysis, DCA)을 기반으로 구축된 문헌 네트워크에는 과학분야 내의 중요 개념간의 관계가 포함되어 해당 분야의 지식구조를 모형화할 수 있으며(Small, 1973), 저자동시인용 분석(author co-citation analysis, ACA)을 기반으로 구축된 저자 네트워크에는 특정 주제 분야의 저자들이 군집화되어 하위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White and Griffith 1981).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활용하여 지식구조 파악이 이루어졌는데 경제학(곽선영, 정은경 2012), 기록관리학(김희정 2005), 마케팅(김재욱 외 2008), 사회복지학(김희진, 조현양 2010), 심장혈관학(임지영, 정은경 2016), 언론학(김영준, 김채환 2007), 의료정보학(허고은, 송민 2013), 커뮤니케이션(김광재, 박종구 2011) 등이 있다.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딥러닝(이재운 2017), 문헌정보학(이재운 2015), 사회학(김영진 1986), 여성학(김조아, 이재운 2016), 증강현실(이정환, 이재열 2013) 등으로 많은 분야에 시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저자동시인용 또는 문헌동시인용 기법을 사용하여 지식구조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송민선(2015)의 연구 또한 저자 키워드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한국학 분야 지식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국학 분석을 위하여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문헌을 사용하였고, 해외에서의 한국학은 WoS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문헌을 사용하여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KCI 문헌과 WoS의 문헌은 저자가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혼재해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대상을 주체로서 인식한 연구(주체 인식)와 한국인이 아닌 주체가 한국이라는 대상을 주체로 인식한 연구(타자 인식)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의 지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동시인용 기법을 적용하여 한국학의 지식구조를 파악하였으며, 한국기관 소속 저자들의 문헌을 국내의 한국학으로, 외국기관 소속 저자들의 문헌을 해외에서 연구되어지는 한국학으로 구분하여 지식구조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 데이터는 세계적인 인용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나인 SCOPUS 인용

데이터베이스¹⁾에서 인문(Arts & Humanities)·사회분야(Social Sciences)에 국한하여 한국(Korea 또는 Korean)으로 검색된 결과를 모두 수집하여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송민선(2015), 송민선과 고영만(2015)의 연구와 같이 한국학 저널을 대상으로 문헌을 수집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학이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한국학 저널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Korea 또는 Korean)이라는 (저자/시스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문헌을 수집하는 것이 한국학 정의에 더 부합하다는 것과 둘째, 만약 한국학 저널로 국한하여 문헌들을 수집한다면 해외에서 발행된 문헌도 해외 한국학 저널 또는 관련 기관의 문헌들을 수집해야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OPUS에서 국내 문헌과 국외 문헌을 수집하였고, 데이터 수집에 활용된 질의어는 [KEY (korea OR korean) AND PUBYEAR < 2019 AND (LIMIT-TO (DOCTYPE, "ar")) AND (LIMIT-TO (SUBJAREA, "SOCI") OR LIMIT-TO (SUBJAREA, "ARTS"))]이다.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2019년도의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아 문헌 발행연도를 2018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문헌을 수집함에 있어서 저자의 소속기관(affiliation)을 한국과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이것은 한국학 지식구조의 분석에 있어서 한국 소재의 기관 저자들의 문헌은 주체(한국)가 인식한 한국학으로, 한국 이외의 소재 기관들에서 발행된 문헌은 타자가 인식한 한국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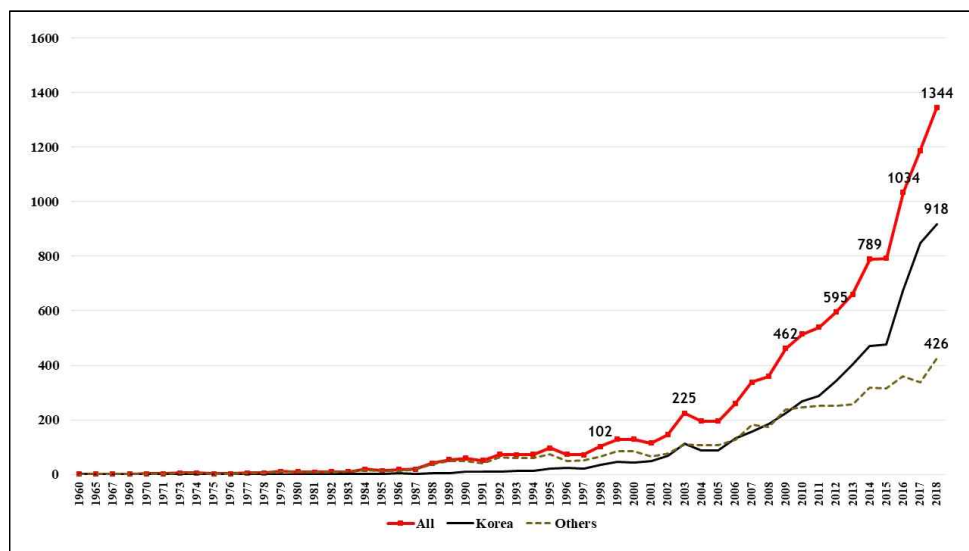
수집결과 총 10,929건의 문헌이 수집되었으며 이중 한국 소재 기관 소속 저자의 문헌은 6,061건, 한국 이외 소재 기관 저자의 문헌은 4,868건이다. 문헌의 발행연도는 196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다. <그림 1>는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 데이터의 연도별 발행건수를 나타낸다. <그림 1>를 보면 'Korea' 또는 'Korean'이라는 단어(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시스템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헌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이외의 지역(Others)에서 발행한 문헌들이 다소 우위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기관 소속의 저자들이 발행한 문헌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한국 이외 지역에서 발행한 문헌들을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의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수행하였고 하위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즉, 문헌동시인용 분석결과로 구축된 군집의 소속 문헌들의 서명에서 명사와 형용사를 추출하여 해당 군집을 표현하였다. 영어 형태소분석과 명사, 형용사 추출은 Python 3.7²⁾에서 제공하는 nltk 패키지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고 추출된 단어를 기반으로 빈도를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

1) www.scopus.com

2) www.python.org

2. 문헌동시인용 분석 기법



〈그림 1〉 SCOPUS 데이터베이스의 한국 관련 문헌 발행건수

앞서 선행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다시피 문헌동시인용 분석은 문헌의 참고문헌 리스트 안에서 동시인용된 개별문헌을 군집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학 지식 구조화를 위해 저자동시인용 분석이 아니라 문헌동시인용 분석 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동시인용 분석이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하는 것보다 지식구조의 모형화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저자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별된 저자와 그들의 세부 전공에 대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지식구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White and McCain 1998). 둘째,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학 코퍼스는 한국학이라는 특성상 문헌과 피인용문헌 모두 한국 저자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Kim, H. J.와 Kim, H. J.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저자명 식별(author name disambiguation)은 정보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Song, Kim, and Kim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적용하여 한국학 하위영역을 파악하였다.

인용문헌과 동시인용된 문헌쌍의 추출은 서지 데이터 분석도구인 VOSViewer³⁾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한국기관 저자의 문헌(주체 인식) 6,061건의 인용문헌은 235,013건이고 2회 이상 인용된 문헌은 6,732건, 3회 이상 인용된 문헌은 1,287건이다. 한국 이외의 기관 소속 저자

3) www.vosviewer.com

의 문헌(타자 인식)은 4,868건으로 이 문헌들이 인용한 문헌은 총 193,847건이다. 이 중 2회 이상 인용된 문헌이 5,141건, 3회 이상 인용된 문헌의 건수가 1,165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쪽 모두 3회 이상 인용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동시인용 문헌쌍을 추출하였고, 주체 인식 한국학 문헌에서는 5,272건의 동시인용 문헌쌍이, 타자 인식 한국학 문헌에서는 4,742건의 동시인용 문헌쌍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문헌쌍을 바탕으로 군집화하기에 앞서 인용문헌 전처리 과정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동일한 인용문헌을 다르게 식별한 것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예를 들어, brown, t.j., dacin, p.a., the company and the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1997) j. mark, 61, pp. 68-84.와 brown, t.j., dacin, p.a., the company and the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1997) journal of marketing, 61, pp. 68-84.이 서로 다른 저작으로 식별되어 동시인용 빈도가 별개로 계산된 것을 통합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SCOPUS가 포함하고 있는 인용 데이터가 WoS와 달리 자연어 그대로 색인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잘못 추출된 인용문헌과 관련된 동시인용 빈도도 삭제되었다. 인용문헌 전처리 후 지식구조 분석을 위해 확정된 데이터는 주체 인식 한국학 문헌이 883건에 동시인용 빈도 4,881건, 타자 인식 한국학 문헌이 804건에 동시인용 빈도가 4,333건이다.

마지막으로 동시인용 문헌들의 군집화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인용 네트워크 내 문헌의 중심성(centrality)을 산출하였고 Gephi⁴⁾에서 제공하는 군집분석(community detection)을 활용하였다(Blondel et al, 2008).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의 특정 노드가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분석지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이수상 2010).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중심성 지표는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다. 연결정도는 어느 한 노드가 이웃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각각의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동시인용 빈도를 이용하여 중심성을 산출했으므로 분석결과에 제시된 연결정도는 곧, 해당 문헌이 가지는 다른 인용문헌들과의 동시인용 빈도의 합을 의미한다. 매개 중심성은 어느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직접적인 연결 관계에 있지 않은 두 개의 노드를 연결시키는 특정 노드가 가진 매개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인접 중심성은 이웃 문헌들과의 최단 거리(경로 거리)를 나타내는 정도로 한 문헌이 다른 문헌들과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지를 측정한 것이다(Bonacich 2007; Elmacioglu and Lee 2005).

4) www.gephi.org

IV. 한국학 지식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저자의 소속기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과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주체 인식 한국학과 타자 인식 한국학으로 나누었고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한국학 지식구조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즉, (공)저자의 기관 소속 중 하나라도 한국 소속일 때 주체 인식 한국학으로, (공)저자의 기관 소속이 모두 해외일 때 타자 인식 한국학으로 구분하였다.

1. 주체 인식 한국학

한국인이 주체로서 한국을 연구한 문헌들의 지식구조는 <그림 2>와 같다.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총 6,061건의 문헌에서 추출한 3회 이상 동시인용된 문헌 883건을 대상으로 총 20개의 군집(하위영역)이 발견되었다. <그림 2>에 보고한 군집은 상위 7개의 군집으로 전체 군집의 약 65%를 차지한다. 각 군집의 표현은 각 군집에 속한 문헌들의 서명에서 단어를 추출하였고 출현 빈도순으로 기술하였다. <표 1>은 <그림 2>에서 표시한 각 군집과 분포, 각 군집 내 연결정도(인용관계)가 가장 높은 문헌과 함께 그 문헌의 실제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⁵⁾에서 집계된 피인용빈도(2020년 2월 1일 기준)를 정리한 것이다.

주체 인식의 한국학의 하위영역 중 가장 큰 군집1(C1)은 마케팅/소비자·서비스분석 분야로 14.5%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1에 속한 문헌들에서는 antecedent (선행요인), tourism (관광), test (테스트), organizational commitment (조직몰입), use (사용), health (건강), experience (경험), behavior (행위), technology (기술), service quality (서비스 품질), consumer (소비자), market (시장), relationship (관계), measurement (측정) 등이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2). 마찬가지로 군집1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으로 사회과학/마케팅 분야의 문헌이다(표 1).

그 다음은 군집2(C2)는 정치경제학/산업화 분야로 13.0%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2에 속한 문헌들에서는 korea, south korea (한국), asia (아시아), politics (정치), industrialization (산업화), welfare (복지), nationalism (민족주의),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globalization (국제화), market (시장), race swift state (인종구성의 변화), finance (금융), citizenship (시민) 등이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들이다(그림 2). 군집2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Amsden, A.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5) <https://scholar.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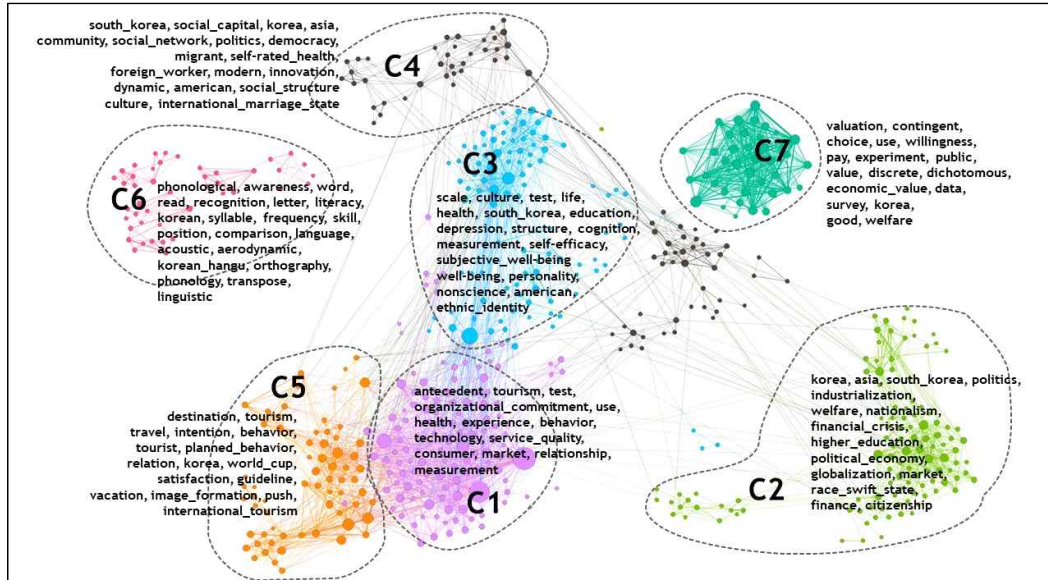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로 한국의 산업화와 관련된 문헌이다(표 1).

군집3(C3)는 심리/정신건강/정서 분야로 11.6%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3에 속한 문헌들은 scale (범위), culture (문화), test (테스트), life (생활), health (건강), south korea (한국), education (교육), depression (우울증), structure (구조), cognition (인식), measurement (측정), self-efficacy (자기 효능감),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 well-being (웰빙), personality (성격), nonscience (비과학), american (미국인), ethnic identity (민족 정체성) 등의 단어가 서명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그림 2). 군집3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로 이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인 통계 분석 기법에 관한 문헌이다(표 1).

군집4(C4)는 다문화/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 분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4에 속한 문헌들은 south korea, korea (한국),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 asia (아시아), community (커뮤니티), social network (사회연결망), politics (정치), democracy (민주주의), migrant (이주자), self-rated health (주관적 건강 인식), foreign worker (외국인 노동자), modern (현대), innovation (혁신), dynamic (역동성), american (미국인), social structure (사회구조), culture (문화), international marriage state (국제결혼 현황) 등의 단어가 서명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그림 2). 군집4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Kim, A. E. (2014).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32 (1), 70-92.』로 한국의 다문화를 분석한 문헌이다(표 1).

군집5(C5)는 관광/여행 분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5에 속한 문헌들은 destination (목적지), tourism (관광), travel (여행), intention (의도), behavior (행위), tourist (관광객), planned behavior (계획된 행동), relation (관계), korea (한국), world cup (월드컵), satisfaction (만족), guideline (가이드라인), vacation (휴가), image formation (이미지 형성), push (추진), international tourism (국제관광)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2). 군집5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Lee, C. K., Lee, Y. K., & Lee, B. (2005). Korea's destination image formed by the 2002 World Cup. *Annals of Tourism Research*, 32(4), 839-858.』이다(표 1).

군집6(C6)는 언어학/한국어/한글 분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6에 속한 문헌들은 phonological (음운론의), awareness (자각), word (단어), read (읽기), recognition (인식), letter (글자), literacy (리터러시), korean (한국인/한국어), syllable (음절), frequency (주파수), skill (기술), position (위치), comparison (비교), language (언어), acoustic (음향의), aerodynamic (공기역학의), korean hangul (한글), orthography (맞춤법), phonology (음운체계), transpose



〈그림 2〉 한국인이 주체로서 한국을 연구한 문헌들의 지식구조

〈표 1〉 주체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과 최고 동시인용 빈도 문헌

군집(분포)	연결정도(인용관계)가 가장 높은 문헌	동시인용 빈도	구글스칼라 인용빈도
C1 (14.5%) 마케팅/소비자·서비스 분석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i>Journal of Marketing Research</i> , 18(1), 39-50.	155	61,414
C2 (13.0%) 정치경제학/산업화	Amsden, A. H. (1989). <i>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i> . Oxford University.	57	11,570
C3 (11.6%) 심리/정신건강/정서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i>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i> , 6(1), 1-55.	82	64,153
C4 (9.1%) 다문화/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	Kim, A. E. (2014).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i>Ethnic and Racial Studies</i> , 32 (1), 70-92.	22	163
C5 (7.5%) 관광/여행	Lee, C. K., Lee, Y. K., & Lee, B. (2005). Korea' s destination image formed by the 2002 World Cup. <i>Annals of Tourism Research</i> , 32(4), 839-858.	49	751
C6 (5.0%) 언어학/한국어/한글	Ziegler, J. C., & Goswami, U. (2005). Reading acquisition, developmental dyslexia, and skilled reading across languages: a psycholinguistic grain size theory. <i>Psychological Bulletin</i> , 131(1), 3.	14	2,616
C7 (4.6%) 환경/가상가치평가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i>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i> , 66(3), 332-341.	48	3,519

(자리바꿈), linguistic (언어학의)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2). 군집6에서 연결 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Ziegler, J. C., & Goswami, U. (2005). Reading acquisition, developmental dyslexia, and skilled reading across languages: a psycholinguistic grain size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31(1), 3.』로 읽기 능력에 관한 문헌이다(표 1).

마지막으로 군집7(C7)는 환경/가상가치평가 분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가상가치평가란 환경 변화 등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금액)를 조사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⁶⁾. 군집7에서는 contingent valuation (가상가치평가), choice (선택), use (사용), willingness (의욕), pay (지불), experiment (경험), public (공중), value (가치), discrete (분리), dichotomous (이분된), economic value (경제적 가치), data (데이터), survey (서베이), korea (한국), good (선), welfare (복지)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2). 군집7에서 연결 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Hanemann, W. 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3), 332-341.』로 복지에 관한 평가를 다룬 문헌이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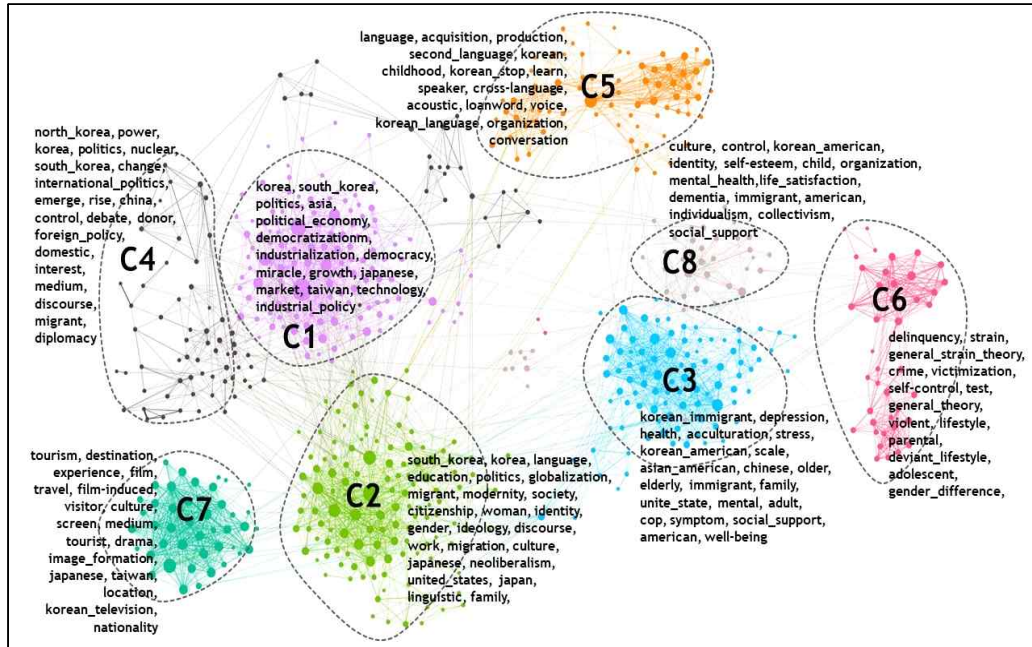
2. 타자 인식 한국학

타자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는 <그림 3>과 같다.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총 4,868건의 문헌에서 추출한 3회 이상 동시인용된 문헌 804건을 대상으로 총 14개의 군집(하위영역)이 발견되었다. <그림 3>에 보고한 군집은 상위 8개의 군집으로 전체 군집의 약 81.2%를 차지한다. 각 군집의 표현은 각 군집에 속한 문헌들의 서명에서 단어를 추출하였고 출현 빈도순으로 기술하였다. <표 2>은 <그림 3>에서 표시한 각 군집과 분포, 각 군집 내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과 함께 그 문헌의 실제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집계된 피인용빈도(2020년 2월 1일 기준)를 정리한 것이다.

타자 인식의 한국학의 하위영역 중 가장 큰 군집1(C1)은 한국 민주주의와 산업화 분야로 17.4%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1에 속한 문헌들에서는 korea, south korea (한국), politics (정치), asia (정치),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democratization (민주화), industrialization (산업화), democracy (민주주의), miracle (기적), growth (성장), japanese (일본의/일본인), market (시장), taiwan (대만), technology (기술), industrial policy (산업 정책) 등이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3). 군집1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Farnsden, A. H. (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으로 한국의 산업화와 관련된 문헌이다(표 2).

6) pn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40383&cid=43667&categoryId=43667>> 인용 [2020.2.1].



〈그림 3〉 한국이 아닌 타자가 한국을 연구한 문헌들의 지식구조

〈표 2〉 타자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과 최고 동시인용 빈도 문헌

군집(분포)	연결정도(인용관계)가 가장 높은 문헌	동시인용 빈도	구글스칼라 인용빈도
C1 (17.4%) 한국 민주주의와 산업화	Amsden, A. H. (1992).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89	11,570
C2 (16.2%) 한국의 국제화와 영어 교육	Park, S. J., & Abelma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45-672.	65	407
C3 (11.7%) 미국 이민과 정신건강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42	438
C4 (10.5%) 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Kyung-Koo, H. (2003). The Anthropology of the Discourse on the Koreanness of Koreans. Korea Journal, 43(1), 5-31.	11	27
C5 (9.3%) 한국어와 한국어 습득	Sohn, H. M. (2001).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	1,372
C6 (5.5%) 한국 청소년 비행과 범죄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26	43,893
C7 (5.5%)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광산업	Shim, D. (2006).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25-44.	52	757
C8 (5.1%) 문화 차이와 정신건강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26	23,933

그 다음은 군집2(C2)는 한국의 국제화와 영어교육 분야로 16.2%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2에 속한 문헌들에서는 south korea, korea (한국), language (언어), education (교육), politics (정치), globalization (국제화), migrant (이주민), modernity (근대성), society (사회), citizenship (시민의식), woman (여성), identity (정체성), gender (성), ideology (이념), discourse (담론), work (일), migration (이주), culture (문화), japanese (일본의/일본인),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 united states (미국), japan (일본), linguistic (언어학의), family (가족) 등이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들이다(그림 3). 군집2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Park, S. J., & Abelma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645-672.』로 한국의 영어교육에 관한 문헌이다(표 2).

군집3(C3)는 미국 이민과 정신건강 분야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3에 속한 문헌들은 korean immigrant (한국인 이주), depression (우울증), health (건강), acculturation (문화변용), stress (스트레스), korean american (한국계 미국인), scale (범위), asian american (아시아계 미국인), chinese (중국의/중국인), older, elderly (노인), immigrant (이민자), family (가족), unite states (미국), mental (정신의), adult (성인), coping (대처), symptom (증상),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 american (미국인), well-being (웰빙) 등의 단어가 서명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그림 3). 군집3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로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이 겪는 문화변용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다룬 문헌이다(표 2).

군집4(C4)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분야로 10.5%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4에 속한 문헌들은 north korea (북한), power (권력), korea, south korea (한국), politics (정치), nuclear (핵), change (변화),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정치학), emerge (등장), rise (증가), china (중국), control (통제), debate (논쟁), donor (기부), foreign policy (외교정책), domestic (국내의), interest (이익), medium (중개), discourse (담론), migrant (이주민), diplomacy (외교) 등의 단어가 서명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다(그림 3). 군집4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Kyung-Koo, H. (2003). The Anthropology of the Discourse on the Koreanness of Koreans. *Korea Journal*, 43(1), 5-31.』로 한국 문화론을 분석한 문헌이다(표 2).

군집5(C5)는 한국어와 한국어 습득 분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5에 속한 문헌들은 language (언어), acquisition (습득), production (생산), second language (제2언어), korean (한국어), childhood (유년기), korean stop (한국어 파열음), learn (배움), speaker (화자), cross-language (언어교차), acoustic (음향의), loanword (외래어), voice (목소리), korean language (한국어), organization (기관), conversation (대화)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3). 군집5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Sohn, H. M. (2001).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다(표 2).

군집6(C6)은 한국 청소년 비행과 범죄 분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6에 속한 문헌들은 delinquency (비행), strain (중압감), general strain theory (일반 긴장 이론), crime (범죄), victimization (피해), self-control (자기통제), test (테스트), general theory (일반 이론), violent (폭력적인), lifestyle (생활방식), parental (부모의), deviant lifestyle (일탈적 생활방식), adolescent (청소년), gender difference (성 차이)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3). 군집6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계 분석 기법에 관한 문헌이다(표 2).

군집7(C7)은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광산업 분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7에서는 tourism (관광), destination (목적지), experience (경험), film (영화), travel (여행), film-induced (영화로 유도된), visitor (방문객), culture (문화), screen (영화), medium (매체), tourist (관광객), drama (드라마), image formation (이미지 형성), Japanese (일본의/일본인), Taiwan (대만), location (장소), Korean television (한국 텔레비전), nationality (국적)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3). 군집7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Shim, D. (2006).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25-44.』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다룬 문헌이다(표 2).

마지막으로 군집8(C8)은 문화 차이와 정신건강 분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8에서는 culture (문화), control (통제), Korean American (한국계 미국인), identity (정체성), self-esteem (자존감), child (어린이), organization (기관), mental health (정신건강), life satisfaction (삶 만족도), dementia (치매), immigrant (이민자), American (미국인), individualism (개인주의), collectivism (집단주의),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 등의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그림 3). 군집8에서 연결정도가 가장 높은 문헌은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로 문화와 자아를 다룬 문헌이다(표 2).

3. 종합 분석

주체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20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고, 타자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14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다. 주체 인식 지식구조에 포함된 문헌들은 883건이고, 타자 인식 지식구조에 포함된 문헌들은 804건이다.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에 따

른 한국학 하위영역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1>과 <표 2>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군집들도 모두 포함하여 수록하였고 <그림 2>, <그림 3>과 마찬가지로 각 군집에 속한 문헌들의 서명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군집명을 선정하였다.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에 따른 한국학 하위영역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첫째, 주체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이 타자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보다 더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다. 즉,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연구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연구보다 주제영역이 더 다양하다.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저자 소속기관의 구성은 주체 인식이 160개 기관, 타자 인식이 160개로 동일하다. 그리고 저자 소속기관의 국가 또한 주체 인식이 67개국, 타자 인식이 69개국으로 거의 비슷하다. 주체 인식의 한국학에서도 국가간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자 소속기관의 국가가 67개로 나타나는 것이고, 타자 인식 한국학은 주체의 시각이 배제된, 즉 한국기관 소속의 저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 연구가 진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저자 수의 비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저자명의 영문 표기에 대한 저자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저자 관련 정량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라기보다는 실제 주체가 다루는 한국학이 한국을 인식함에 있어서 더 다양하게 인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체가 한국학의 주제로 다루는 주요 분야는 마케팅/소비자와 서비스, 산업화, 다문화,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환경과 도시 등 인문분야보다 사회분야가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송민선과 고영만(201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송민선과 고영만(2015)의 연구에서는 KCI에 등재된 한국학 관련 저널(한국학 또는 관련 용어들이 학술지명에 등장하는 저널) 14종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2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두 개의 주요 군집 중 하나는 『실학과 성리학의 정치/사회 주제와 한문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과 정치 상황,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시기의 역사와 문화 이데올로기, 문학(사)』로 역사학과 정치외교학, 한국어/문학에 관련된 연구이다. 나머지 군집들은 주자학, 한문학, 국어학, 북한주민/탈주민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즉, 송민선과 고영만(2015)은 인문학 분야와 사회학 일부에 국한된 협의의 한국학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는 광의의 한국학 정의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한국 정치와 역사 영역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SCOPUS에 색인되는 문헌들이 영문 제목과 초록을 제공해야 하고 국내의 대다수의 인문학 저널들이 SCOPUS에 색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환경변화·에너지, 주택·도시문제 등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분야이지만 순수 인문학보다 SCOPUS에 영어로 색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체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 작게라도 하위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송민선과 고영만(2015)의 연구결과를 통합하면 본 연구에서 의도한 주체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가 더 잘 설명되리라 본다.

셋째, 타자가 한국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야는 크게 한국 대내외의 상황(정치, 경제, 산업, 사회문제 등)과 한국 대중문화, 미국 이민자로서의 한국인 상황(문화적응, 정신건강 등), 한국어(습득) 등 역사학을 제외한 인문·사회학 분야의 하위영역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자 인식 한국학이 비록 주체 인식에서 보다 작은 크기의 군집 수를 보이지만, 주체 인식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한국 정치와 민주화, 출산율 등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영역들이 지식구조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송민선(2015)의 연구에서도 WoS에 수록된 한국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제시한 해외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 속한 군집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자가 한국이라는 대상을 어떤 영역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아닌 다른 집단에서는 한국 내외의 상황과 정세, 대중문화, 한국계 미국인, 한국어 등에서 발견되는 한국을 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영역은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탈주민, 청소년 비행 등이다. 정신건강은 우울증, 자기효능감, 웰빙, 사회적 지지 등을 다루고 있고, 관광

〈표 3〉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의 차이에 따른 한국학 하위영역의 분포

주체 인식			타자 인식		
군집	분포(%)	군집명	군집	분포(%)	군집명
C1	14.5	마케팅/소비자·서비스분석	C1	17.4	한국 민주주의와 산업화
C2	13.0	정치경제학/산업화	C2	16.2	한국의 국제화와 영어교육
C3	11.6	심리/정신건강/정서	C3	11.7	미국 이민과 정신건강
C4	9.1	다문화/외국인노동자/국제결혼	C4	10.5	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세
C5	7.5	관광/여행	C5	9.3	한국어와 한국어 습득
C6	5.0	언어학/한국어/한글	C6	5.5	한국 청소년 비행과 범죄
C7	4.5	환경/가상가치평가	C7	5.5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광산업
C8	4.2	도시/주택/교통	C8	5.1	문화 차이와 정신건강
C9	4.2	국가경쟁력/문화·영화·기술	C9	4.7	한국의 북한 탈주민
C10	4.2	관광·스포츠·카지노	C10	4.4	입양아의 문화 적응
C11	4.0	관광·성형·화장품·레저	C11	4.4	이민 사회와 문화
C12	3.6	기업의 사회적 책임	C12	2.2	한국 정치와 민주화
C13	3.5	식물·생태환경 변화	C13	1.6	남아선호·출산율
C14	3.3	탈주민·이주민/학교폭력	C14	1.6	한국어 음소·자모
C15	2.2	에너지발전·재생에너지			
C16	1.7	지역 발전			
C17	1.4	산사태지형·재난			
C18	1.3	망중립성(통신기술)			
C19	1.1	기후변화·예측			
C20	0.3	수질관리			

은 여행 의도, 이미지 형성, 한국 드라마 등을 다루고 있다. 한국어는 한국어/한글의 특징과 습득(교육), 탈주민은 북한에서 탈주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주민들의 현실을, 청소년 비행은 중독과 탈선, 학교폭력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한국학의 하위영역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서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다룬 정성적 분석이 아닌 사회·과학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 정량적 분석이다. 이것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계량정보학의 문헌동시인용 기법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이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한국학을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으로 구분하여 이 두 시각의 차이에 따라 한국학 하위영역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체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20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고, 타자 인식 한국학의 지식구조에서는 총 14개의 하위영역이 발견되었다. 주체 인식 한국학과 타자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 구성에 있어서 차이점은 첫째, 주체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이 타자 인식 한국학의 하위영역보다 더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되어 있다는 것, 둘째, 주체 인식 한국학은 마케팅/소비자와 서비스, 산업화, 다문화,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환경과 도시 등이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타자 인식 한국학은 크게 한국 대내외의 상황, 미국 이민자로서의 한국인, 한국어가 주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체 인식과 타자 인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영역은 정신건강, 관광, 한국어, 탈주민, 청소년 비행 등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SCOPUS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한국학 코퍼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SCOPUS에 색인될 가능성이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순수 인문학 문헌들이 분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향후 KCI 저널 중 한국을 주제로 하는 문헌들을 추출하여 인용문헌들을 수작업하여 보강한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학 지식구조를 파악하는데 기존의 인문학적 접근법인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라는 학문영역의 포괄성이 가지는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학의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기존의 지엽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주제와 대상의 영역을 담고 있는 지식구조를 주체와 타자 인식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제시한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학 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10. 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 의미학』, 32: 1-28.
- 곽선영, 정은경. 2012. 복수저자기반 동시인용분석을 활용한 지적구조 분석: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1): 115-134.
- 김광재, 박종구. 2011. 저자동시인용 분석방법을 이용한 혁신확산 연구의 지적구조: 커뮤니케이션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5(6): 52-87.
- 김석득. 1983. 프랑스에서의 한국학과 언어학 연구의 흐름. 『동방학지』, 39: 253-258.
- 김승환. 2010. 한국학의 갈래와 개념. 『배달말』, 47: 283-307.
- 김영준, 김채환. 2007. 국내 언론학의 지적 구조 매핑 (Mapping) 에 관한 연구: 1989~2006년 저자동시인용 분석.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3): 155-184.
- 김영진. 1986. 논문의 동시인용을 통한 지적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103-135.
- 김윤태. 2006. 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 『중국연구』, 38: 77-91.
- 김재욱, 이소영, 김향미, 이진화. 2008. 저자 동시 인용 분석을 통한 저자 동시 인용 분석을 통한 “관계 마케팅” 연구 동향 및 지적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저자 관계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3(3): 1-35.
- 김조아, 이재윤. 2016. 인용 이미지 구축자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국내 여성학 분야 연구 전선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2): 201-225.
- 김현. 2013. 디지털 인문학. 『인문콘텐츠』, 29: 9-26.
- 김희전, 조현양. 2010. 저자동시인용분석과 저자서지결합분석에 의한 지적 구조 분석: 사회복지학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7(3): 283-306.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 박영신. 1983.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동방학지』, 39: 247-252.
- 박정신. 1999. 미국에서의 한국학동향. 『인문과학연구』, 18: 23-32.
- 송민선. 2015. 한국학 분야의 지식 구조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125-157.
- 송민선, 고영만. 2015. 국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영역 식별을 위한 거시적 지식구조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21-236.
- 송현호. 2012. 중국 지역의 한국학 현황. 『한중인문학연구』, 35: 463-504.
- 송현호. 2013. 중앙민족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 40: 329-354.
- 양동훈. 2019. 중국의 한국학 석박사 졸업논문 현황과 특징 연구. 『아시아연구』, 22(1): 175-198.
- 오가레크 최. 1990. 폴란드에서의 한국학연구 현황. 『아시아문화』, 6: 209-212.
- 이병도. 2003. 태국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한국국제지역학보』, 2: 173-193.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 도서관 · 정보학회지』, 41(2): 297-315.
- 이재윤. 2015. 문헌동시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 전선 파악. 『정보관리학회지』, 32(4): 77-106.
- 이재윤. 2017. 자아 중심 주제 인용분석을 활용한 딥러닝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4): 7-32.
- 이정환, 이재열. 2013. 동시인용분석 기반 지식영역 가시화 기법을 활용한 증강현실 연구 분석. 『한국 CAD/CAM학회논문집』, 18(5): 309-320.
- 임지영, 정은경. 2016. 심장혈관학 분야의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국내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비블리아학회지』, 27(1): 111-134.
- 임현진, 정일준. 2012. 사회학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 한국학의 세계화 전략 모색. 『한국학연구』, 43: 461-494.
- 전성운. 2010. 한국학의 개념과 세계화의 방안. 『한국학연구』, 32: 317-337.
- 최기숙. 2011. 1950-1960년대 인문학 학회지에서의 한국학 연구 구성의 특징: 개념·범주·방법론. 『열상 고전연구』, 33: 265-301.
- 함동주. 2001.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동향과 한국인식. 『이화사학연구』, 28: 197-215.
- 허고은, 송민. 2013.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이용한 의료정보학 저널의 지적구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07-225.
- Blondel, V. D., J. L. Guillaume, R. Lambiotte and E. Lefebvre. 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10): P10008.
- Bonacich, P. 2007. "Some unique properties of eigenvector centrality." *Social Networks*, 29(4): 555-564.
- Elmacioglu, E., and D. Lee. 2005. "On six degrees of separation in DBLP-DB and more." *ACM SIGMOD Record*, 34(2): 33-40.
- Garfield, E. 1979. "Is citation analysis a legitimate evaluation tool?." *Scientometrics*, 1(4): 359-375.
-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4): 265-269.
- Song, M., Kim, E. H.-J., and H. J. Kim. 2015. "Exploring author name disambiguation on PubMed-scale." *Journal of Informetrics*, 9(4): 924-941.
- White, H. D., and B. C. Griffith. 1981.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2(3): 163-171.

- White, H. D., and K. W. McCain. 1998. "Visualizing a discipline: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1972-199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9(4): 327-35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Key Sook. 2011.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Studies and the Research Vision of the Dept. of College of Humanities in Korean Universities During 1950~1960's: Concept·Category·Methodology - Focusing on the Academic Journals." *Yeol-Sang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33: 265-301.
- Chun, Sung Woon. 2010. "The Conception of Korean Study and Its Way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32: 317-337.
- Czoi, Ogarek. 1990.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Poland." *Asia Culture*, 6: 209-212.
- Ham, Dong Ju. 2001. "Korean Studies Trends and Awareness about Korea in Japan." *Ewha Sahak Yeongu*, 28: 197-215.
- Heo, Go Eun, & Min Song. 2013.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medical informatics journal with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07-225.
- Kang, Beom-mo. 2010. "Constructing Networks of Related Concepts Based on Co-occurring Nouns." *Korean Semantics*, 32: 1-28.
- Kim, Gwang Jae and Bellnine Park. 2011. "Intellectual Structure of Innovation Diffusion Research in the Communication Disciplin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6): 52-87.
- Kim, Hee-Jeon and Hyun-Yang Cho. 2010.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and Author Bibliographic Coupling Analysi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3): 283-306.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 Kim, Hyeon. 2013. "Digital Humanities - Cooperative Scheme between Humanities and Cultural Contents -." *Humanities Contents*, (29): 9-26.
- Kim, Jae Wook, Hyang Mi Kim, So Young Lee, and Jin Hwa Rhee. 2008. "Research Trend and Knowledge Structure of Relationship Marketing - Based on Authors Co-citation Analysis

-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o identify Authors Relationship-.” *Korean Marketing Review*, 23(3): 1-35.)
- Kim, Jo-Ah, and Lee Jae Yun. 2016. Analyzing the research fronts of women's studies in Korea using citation image makers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2): 201-225.
- Kim, Seung Hwan. 2010.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47: 283-307.
- Kim, SukDeug. 1983. “The Koreanology and Linguistics in France.” *The Dong Bang Hak Chi*, 39: 253-258.
- Kim, Young-joon and Chae-hwan Kim. 2007.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mmunication research field in Korea : An author co-citation analysis, 1989~2006.”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5(3): 155-184.
- Kim, Young-Jin (1986.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using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 103-135.
- Kim, Yun Tae. 2006. “The Recent Trends of Korean Studies in China.”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38: 77-91.
- Kwak, Sun-Young and EunKyung Chung. 2012. “Domain analysis on economics by utilizing cocitation analysis of multiple author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115-134.
- Lee, Byung Do. 2003. “Current Status and Research Problem of Korean Studies in Thailand.” *Korean Review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 173-193.
- Lee, Jae Yun. 2015. “Identifying the Research Fronts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y Document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77-106.
- Lee, Jae Yun. 2017. “Deep Learning Research Trends Analysis with Ego Centered Topic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4): 7-32.
- Lee, Soo-Sang. 2010.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author network analysis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97-315.
- Lee, Jeonghwan and Jae Yeol Lee. 2013. “Analysis of the research on augmented reality using knowledge domain visualization based on co-citation analysi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CAD/CAM Engineers*, 18(5): 309-320.
- Lim, Hyun-Chin and Il-Joon Chung. 2012. “Korean Studies in Sociology: In Search of a Strategy for Globalizing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n Studies*, 43: 461-494.
- Lim, Ji-young and EunKyung Chung. 2016.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intellectual

- structure in the field of cardiovascular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1): 111-134.
- Park, Jung Shin. 1999. “The Trends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Sungshin Humanities Research*, 18: 23-32.
- Park, Yong Shin. 1983. “A Note on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Kingdom.” *The Dong Bang Hak Chi*, 39: 247-252.
- Song, Min-Sun. 2015.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Analysis in Korea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125-157.
- Song, Min Sun and Young Man Ko. 2015. “A Study on the Macro Analysis of Knowledge Structure of the Domestic Korean Studies for Identifying the Research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21-236.
- Song, Hyun Ho. 2012. “General Information of Korean Studies in China.”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35: 463-504.
- Song, Hyun Ho. 2013. “Status and Tasks of Korean Studies at Minzu University of China.” *Studies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40: 329-354.
- Yang, DongHoon. 2019. “A Study o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ster’s and Doctorate Graduation theses on Korean Studies in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2(1): 175-198.